



스포츠동아와 청춘스포츠가 1929(19~29세) 세대 객원기자들과 함께 만드는 젊은이 페이지 'YOUNG' 색션을 운영합니다. 'YOUNG' 객원기자들은 뜨거운 젊음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스포츠를 위해 활활 태우며 살아가는 '스포츠 덕후'들입니다. 마니아를 넘어선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사랑, 전문가 못지않은 풍부한 지식과 정보력, 그리고 특목 특는 아이디어와 발랄한 문체로 스포츠의 읽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K리그 데뷔 목표” 日 유학생 타쿠마의 꿈

정춘, 청춘을 만나다
4 한양대학교 이시바시 타쿠마

패스가 강점인 수비형 MF...U리그서 활약
원활한 의사소통 위해 한국어 공부 노력중
“엔도 야스히토처럼 선수로 오래 뛰고 싶다”

프로진출을 향해 전력을 쏟는 U리그(대학리그)엔 2774명의 선수들이 뛰고 있다. 3000명에 가까운 선수 중 유일한 일본 국적의 선수가 있다. 바로 한양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 '이시바시 타쿠마'다.

타쿠마는 지난해 외국인 특기자 전형으로 한양대 체육학과에 입학한 일본인 축구 선수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의 슈가칸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 감독의 추천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일본에서 교환학생이나 유학생의 신분으로 한국 땅을 밟는 대학생은 많지만, 이렇게 엘리트 선수가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타쿠마는 올해 대학교 2학년이 되었다. 한국 생활 2년차를 맞은 소감을 묻자 타쿠마는 “지난해에 비해 많은 경기를 소화할 수 있어 기쁘다”며 웃었다. 실제로 타쿠마는 이번 시즌 한양대학교 소속으로 U리그, 춘계 연맹전, FA컵 등에서 알토란같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타쿠마의 강점은 패스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활약하는 타쿠마는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정재권 한양대 감독과 코칭스태프 역시 타쿠마의 패스 능력을 인터뷰를 통해 칭찬한바 있다.

타쿠마는 현재 한국 축구 문화에 적응 중이다. 타쿠마는 한국 축구의 특징에 대해 “한국은 일본과 달리 압박의 강도가 상당하다. 조금만 판단이 느려도 공을 편안하게 소유하기 어렵다. 특히 몸싸움의 강도가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타쿠마는 한국 축구 스타일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 웨이트와 체력 훈련을 성실히 소화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타쿠마의 한국 적응을 위한 노력은 진행 중이다. 특히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경기장 내에서는 보드판을 통해 소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지만, 팀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타쿠마는 훈련 시간 이외의 시간을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데 할애하고 있다.

한국에 연고가 없어 타쿠마는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한국 특유의 선후배 문화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타쿠마는 “언어 문화가 아직까지 어색하긴 하지만 선배와 동료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타쿠마의 최종 목표는 한국 선수들과 같은 프로 데뷔다. 톨볼로 일본 국가대표 엔도 야스히토를 뽑은 타쿠마는 엔도처럼 오랜 기간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FC서울에서 활약한 다카하기를 언급하며, K리그에서도 기량을 인정받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다 건너 타지에서 프로 데뷔의 꿈을 꾸고 있는 타쿠마. 어쩌면 우리는 5년 뒤 일본 국가대표 선수를 대학 리그에서 미리 만나고 있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국내 대학 축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2774명의 선수 중 유일한 일본인 선수인 이시바시 타쿠마가 캠퍼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타쿠마의 꿈은 톨볼 모델인 엔도 야스히토처럼 오래도록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것이다.
사진제공 | 이시바시 타쿠마·스포츠동아

14일 ICX SEOUL 출전하는 이성현



“격투기로 받은 사랑 명승부로 보답할 것”

오는 14일 입식격투기 국가대항전 ICX의 첫 대회인 'ICX SEOUL'이 열린다. 최근 UFC로 대표되는 종합 격투기에 비해 입식격투기는 많은 흥행을 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식격투기 국가대항전 플랫폼인 ICX는 지난 3월에 열린 쇼케이스 때 입식격투기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선수들 역시 화려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끄는 데에 성공했다.

한국 입식격투기 선수들 중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입식격투기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성현에게 한국 입식격투기에 대해 들어봤다.

격투기 선수들이 그렇듯 이성현 역시 우연한 계기로 격투기에 입문했다. 친구의 추천으로 가까운 체육관에 들어가게 됐고, 격투기에 흥미를 느끼며 정식 격투기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

이성현은 격투기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한다. 소심했던 성격이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성격으로 바뀌었고, 한국 K-1 코리아 맥스 챔피언 타이틀과 일본 라이브 라이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며 챔피언이라는 명에도 얻었다.

이성현은 이번 ICX SEOUL 대회가 한국 격투기에 본인이 보답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내 입식격투기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플랫폼인 입식격투기 국가대항전 ICX는 한국 입식격투기뿐만 아니라 세계 입식격투기의 흥행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성현은 이번 ICX SEOUL에서 메인 이벤트로 몽골의 바트자르갈을 상대한다. 그는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서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아요. 주변에 입식격투기를 같이하던 선수들이 종합 격투기로 종목 변경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이번 대회에서 메인 이벤트를 맡은 만큼 명승부를 펼쳐 입식격투기의 흥행을 이끌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격투기를 통해 받은 사랑을 이번 'ICX SEOUL'을 통해 돌려주고 싶다는 이성현. 격투기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한국 입식격투기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14일 장충체육관 링에 선 그의 모습이 기대된다.

IBK의 셋별 변지수 “내가 미래의 V리그 스타”

출전 기회 적지만 팀 분위기 상승 앞장
변지수 “기회 놓치지 않도록 훈련 집중”

변지수(IBK 기업은행 알토스), V리그 팬들에게도 낯선 이름이다. 2015~2016시즌 IBK 기업은행에 입단한 신인급 선수다. 경쟁한 팀 선배들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미래의 V리그 스타를 꿈꾸는 변지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변지수의 배구 입문은 우연한 계기로 이뤄졌다. 초등학교 시절 큰 키를 가진 덕분에 높이뛰기 선수로 활약했던 변지수는 6학년 마지막 소년체전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교 배구부 코치의 간곡한 권유로 배구공을 잡게 된다.

시작은 늦었지만 변지수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배구 선수로 성장한다. 배구 명문으로 알려진 선명여고 주전으로 팀의 우승을 이끈 변지수는 청소년 대표로 태극마크까지 달며 재능을 인정받는다. 결국 2015~2016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6번으로 IBK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 선수가 된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정했다. 매해 V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IBK 기업은행 사정상 변지수는 출전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에서 출전 기회를 많이 부여 받는 또래들이 부러울 법도 하지만, 변지수는 오히려 우승 경험을 두 차례나 했다는 것이 선수 생활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늘 겸손한 자세로 선배·동료들을 성원하며 미래의 여자배구스타 등극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IBK 기업은행의 변지수.
사진제공 | IBK 기업은행

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지만 변지수의 팀에 대한 애정은 주전 선수 못지않다. 경기 시작 월업존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앞장선다. 경기 중에도 점수가 나오거나 실수가 나오면 가장 먼저 목이 터져라 파이팅을 외친다.

특히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4차전에서 팀 동료 김하경이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되자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동료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는 변지수지만 자신에게는 냉정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미완성 선수”라고 자신을 평가한 변지수는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변지수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출전 시간이 늘었지만 주어진 기회를 100% 살리지 못한 아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IBK 기업은행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주축 선수인 박정아를 포함해 5명의 선수가 FA자격을 얻는다. 내년 시즌 전력 유출이 심화된다면 변지수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한 자세로 팀을 위해 뛰는 변지수의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어리더에게 가장 중요한건 체력과 마음가짐이죠”

열려라! 스포츠 Job
kt 야구단 치어리더 이고은 씨

스포츠의 치열한 승부 속, 잠시나마 팬들에게 휴식과 색다른 재미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장의 또 다른 스타 치어리더. 실제 경기장을 찾는 팬들 중 치어리더를 만나러 오는 팬들도 여럿 존재한다. 단순히 응원단을 넘어 경기 속 하나의 아이콘으로 성장한 치어리더라는 직업을 알아보기 위해 삼성 농구단, kt 야구단이 이고은 치어리더를 만났다.

-근무하는 곳, 직위 등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엑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벤트 회사 소속이고 치어리더 팀 안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이고은 치어리더예요.”

-구체적인 입사 과정이 궁금한데요.
“입사과정은 일반 회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서류면접을 보고난 뒤 실무면접이라 할 수 있는 안무 시험을 봐요. 합격한다면 프로 치어리더들과 안무를 같이 맞춰보는 등 연습 시간을 가진 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경기장에 투입

시기가 결정돼요.”

-치어리더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우리 치어리더들은 경기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어요. 보통 경기 4시간 전까지 출근해 안무를 맞추며 그날 경기장 이벤트 진행과 관련해 스태프들과 리허설을 진행하죠. 이후 2시간 전까지 남은 시간에 메이크업을 하고 밥을 먹어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는 경기장에 찾아오는 팬들의 입장을 받는데, 그때 저희 치어리더들과 같이 나가 사진 촬영 등 개문 행사에 참여해요. 그다음 경기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작전타임, 당일 준비된 이벤트 시간 때 공연을 진행하죠.”

-치어리더의 채용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딱히 정해진 치어리더 공채 시기는 없어요. 하지만 시즌 시작하기 대략 한 달 전쯤에 신입 치어리더를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인원 교체도 진행하면서 팀 구성을 시작하는 본격적인 시기거든요. 보통 치어리더 팀도 시즌이 시작할 때쯤이면 한 시즌을 같이 할 고정적인 팀 구성원을 정해요. 간혹 시즌 진행 중 불참하게 구성원을 필요로 할 때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치어리더 지원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부

분이라면,
“체력이랑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야구는 경기 시간이 3시간 이상 되고 여름엔 더운 데도 계속 뛰어야 해요. 공격 때 주로 응원을 하는데, 공격이 30분 이상 이어지면 조금씩 지쳐가죠. 하지만 팬들에게 지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으니 평소 체력 단련은 필수예요. 그리고 이 치어리더가 진심으로 응원을 열심히 하는지 대충하는지 팬들은 다 알아요. ‘내가 이 많은 팬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연봉이나 기타 복지 제도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계약 조건이 달라요. 기본 연봉에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을 하거나 경기장에 나오는 횡수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20대 초반에 입사해 활동하는 치어리더들을 기준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경력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다른 회사가 더 많은 돈을 주고 스카우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기가 올라가는 경우엔 경기 외에 스포츠의류나 게임 등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치열한 경쟁과 같은 경기장에서 잠시나마 팬들에게 숨 돌릴 시간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포츠의 꽃’ 치어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이고은.
김지현 대학생 명예기자